

					I -A-2
제목	국문	서울시 일부지역주민의 비만인식도와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 실천의 상관관계			
	영문	Relationship of Intentional Weight Control Practices According to People's Perception of Fatness and Obesity in Seoul			
저자 및 소속	국문	황경화, 문옥륜, 김남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			
	영문	Kyoung Hwa Hwang, Ok Ryun Moon, Nam Soo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, Seoul National University			
분야	보건관리 [건강증진]	발표자	황경화 [일반회원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<p><b>1. 목적</b></p> <p>비만한 사람들이 건강과 부 상장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체중증가와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며 비만한 사람은 자기관리에 실패한 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.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비만인식도에 따른 체중조절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.</p> <p><b>2. 방법</b></p> <p>본 연구는 2000 년 노원·성북지역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. 노원·성북지역조사는 한국인 비만의 역학적 특성 파악 및 비만기준설정을 위해 수행되었다. 연구대상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두 지역주민으로 건강면접조사와 신체계측검사(신장, 체중)받은 3,878 명이였다. 단, 체질량지수 18.5 kg/m<sup>2</sup>미만인 저체중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재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총 3,552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 체질량지수는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을 실측해서 산출하였고, 비만기준은 문옥륜등이 1998 년 국민건강조사 자료로 연구한 "한국인 비만의 역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관리 전략 개발 연구"에서 사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</p> <p><b>3. 결과</b></p> <p>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남자는 정상체중 37.5%, 과체중 27.3%, 경도비만 32.2%, 중등도 비만이상이 3.1%였고, 여자는 정상체중 44.7%, 과체중 23.7%, 경도비만 27%, 중등도 비만이상이 4.6%였다.</li> <li>비만도에 따른 체형인식도를 살펴보면 비만하지 않는 그룹에서의 체형 인식도를 보면 남자는 80.6%가 체형을 비만이라 인식하지 않았고, 19.4%가 체형을 비만이라 인식했다. 여자의 경우 58.5%가 체형이 비만하지 않다고 인식했고, 41.5%가 비만이라 인식하고 있었다. 비만군에서의 체형 인식도를 보면 남자는 21.9%가 비만하지 않다고 인식했고, 78.1%가 체형을 비만이라 인식했다. 반면 여자의 경우 13.3%가 비만하지 않다고 인식했고, 86.8%가 체형을 비만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</li> <li>비만도별 체형 인식도에 따른 체중조절 실천을 보면 비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체형이 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남성의 경우 비만하지 않으면서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 aOR=3.347, 95%CI=2.366-4.736, 비만하면서 체형을 비만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 aOR=4.035, 95%CI=2.464-6.608, 비만하면서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 aOR=5.496, 95%CI=4.066-7.430 로 유의하였고, 여성은 경우 비만하지 않으면서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 aOR=2.591, 95%CI=2.079-3.229, 비만하면서 체형을 비만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</li> </ol>					

aOR=1.926, 95%CI=1.087-3.413, 비만하면서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은 aOR=4.931, 95%CI=3.802-6.39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

#### 4. 고찰

본 연구는 성인의 비만도별 비만인식도에 따른 체중조절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인 비만도 보다는 주관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이 체중조절 실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. 건강행태에서는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(Subjective assessment)가 중요하다는 나타내고 있다. 인구집단 중 특히 실제 과체중 또는 비만이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들에게 보건교육등을 통해 비만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비만이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. 물론 체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서 단식·절식, 다이어트 약 복용, 지방흡입술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중조절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체중조절 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.